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 복원 방안 토론회 개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단법인 지구행동 공동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월 30일(금) 광화문 에스타워 벤틀스홀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 복원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산불로 훼손된 산림의 회복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사단법인 지구행동이 공동 주최하며, 관계부처, 환경단체, 산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산림 복원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토론회는 김은경 사단법인 지구행동 이사장을 좌장으로 하여 박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임업분과위원장, 윤여창 사단법인 산과 자연의 친구 회장, 김국희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상임대표,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최영선 사단법인 노을공원 시민모임 공동대표, 윤여진 사단법인 생명의숲 사무처장, 하지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이 참여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우종영 나무의사는 ‘산불, 복원과 시민참여 방안’을 통해 산림 복원이 단순한 복구 사업을 넘어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하지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대형 산불 피해지 복원 정책 계획’을 발표하며, 농산촌지역 발전을 위한 산불 피해지 복원과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설명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산림은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 국가의 기후 대응 역량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산림 생태 복원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어촌정책팀	책임자	팀 장	엄성준 (02-6260-1221)
		담당자	전문관	윤석민 (02-6260-1233)